

프랑스, 세수 감소로 재정상태 악화

경기 침체로 인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 급감으로 2009년 상반기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24.7% 감소하여, 재정수지 적자가 연말에는 1,270억 유로에 이를 전망(2008년 경상 GDP 1조 9,501억 유로의 6.5% 상당).

□ 세수 감소 항목별 분석

- 2009년 상반기 조세수입은 1,085억 유로로 전년 동기 1,441억 유로에 비해 24.7% 감소
 - 법인세(**Impôt sur les sociétés: IS**)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0.5%가 감소한 56억 유로(전년 동기에는 285억 유로)
 - 부가가치세(**Taxe sur la valeur ajoutée: TVA**)는 16.4%가 감소한 545억 유로
 - 석유제품 소비세(**Taxe intérieure sur les produits pétroliers: TIPP**)는 12.1%가 감소한 70억 유로
 - 소득세(**Impôt sur le revenu**)만 유일하게 3.3% 증가하여 310억 유로 기록
 - 기타 재정수입(**Autres recettes fiscales**)은 16.3%가 감소한 104억 유로

- 프랑스의 재정수지 적자는 6월 말 현재 866억 유로, 연말 1,27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(2008년 6월 말에는 328억 유로). **정부 부채**는 3월 말 1조 4,136억 유로로 전년 동기보다 1,638억 유로가 증가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.

□ 세수 급감 원인 분석

○ 경기침체

- 2009년 상반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2.6% 감소(세수 감소액 356억 유로 중 267억 유로)
-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자물가 하락(7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0.7% 하락)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
- 경기 침체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73억 유로 감소
- 2008년 경기악화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173억 유로 감소
- 재무부는 2009년 법인세가 2008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200~25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, 부가가치세는 1,200~1,220억 유로로 전망

○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집행

- 기업 세금 환급 (연구비용 감세, 기업손실 이연, 부가가치세감세).
- 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 배당금 등 비조세수입 역시 다른 세원들과 마찬가지로 상황이어서 2009년 상반기 78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26.3% 감소

○ 악화되는 재정수지 문제가 9월 의회에서 다루어질 예정

- 재정지출 억제와 예산절감이 주가 될 것이며 조세경감 비율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

□ 재정부담의 원인이 된 조세감면 제도

경기국면과 큰 관계가 없는 조세감면은 최근 5년간 급증하여 2009년에는 세수의 약 25%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가

○ 주택 리노베이션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

- 가계 부담을 줄이고 건축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10년 전 사회당 조스팽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건축 후 2년이 지난 주택에 대해 개선, 변형, 개조, 유지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TVA를 5.5%로 경감한다

는 내용임. 이를 통한 2009년 감면액은 54억 유로로, 5년 전 대비 31.7% 증가하였으며, 수혜 기업은 2007년에 약 31만개로 추정됨.

○ **자가고용 재택근무자 감세 (Réduction d'impôt pour l'emploi de salariés à domicile)**

- 자가고용 재택근무자에 대한 감세 규모는 2004년 17억 유로에서 2009년 27억 유로로 상승. 감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경우 정부는 해당 초과금액을 환급

○ **고용보조금 (Prime pour l'emploi: PPE)**

- 저소득 납세자들을 위해 고용 재개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. 2004년 이에 소요된 총액은 25억 유로에 달했고, 이 정책에 적용되는 870만 납세자들은 일인당 평균 290유로의 조세혜택을 받았음. 2007년과 2008년에 45억 유로로 절정을 이룬 이 조세혜택금은 2009년 39억 유로로 감소. “적극적 연대 수입(RSA)”이 PPE의 일부를 대신할 것임.

○ **연구개발비 조세혜택 (Crédit d'impôt recherche: CIR)**

-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을 낮추어 기업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. 2004년 4.8억 유로였는데, 규모가 점점 커져서 2009년에는 20억 유로를 상회.

○ **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감면 (Crédit d'impôt pour les économies d'énergie)**

- 주택 에너지 소비 절약을 목표로 함. 이 정책의 수혜자는 2004년 77만 명에서 2007년에 130만 명으로 늘었으며 과세대상세대 평균 1,500 유로의 혜택을 봄. 이 감면 규모는 2008년에 최고인 20억 유로에 이르렀고, 2009년에는 대략 15억 유로가 될 것으로 전망

○ 주택구입용 대출금 이자에 대한 혜택 (**Crédit d'impôt sur les intérêts d'emprunt immobilier**)

- 주택구입 지원이 목표. 사르코지 대통령이 취임 후 2007년 여름에 도입되었으며, 조세 감소는 2009년 11.7억 유로로 전망. 현재 주택 시장이 침체에 있으나 대출금 상환 최초 5년간 혜택을 받으므로 재정부담은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

○ 기부금에 대한 감세 (**Réduction d'impôt au titre des dons**)

- 동 감세의 수혜자는 2004년 130만 명에서 2008년 5백만 명으로 증가. 세수 부담 규모는 2004년 5.9억 유로에서 2009년 9.5억 유로로 증가. 2008년 1월 1일 이후 이 감세혜택은 문화 인프라 관련 기부금에도 적용됨.

<파리사무소 제공>